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다이이치생명, 변액연금 한시적 판매 중단

□ 일본의 최대 생명보험회사 중 하나인 다이이치생명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최근 방카슈랑스 전용 변액연금보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함.

- 판매 중단된 상품은 원금보장형 변액연금보험으로 원금보장을 위한 비용 부담이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돌자 다이이치생명은 상품 내용을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재 판매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.
- 이번 다이이치생명의 조치로 작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위험 상품인 변액 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회사는 올해에만 총 5개사로 늘어남.

일본 생명보험업계의 변액보험 판매 현황

판매 중단 보험사	한시적 판매 중단 보험사	판매 중 보험사
하트포드생명 ING생명 스미토모생명 미츠이생명	다이이치생명 (리뉴얼 후 재판매 예정)	미츠이스미토모해상메트라이프생명 도쿄해상니치도파이낸셜생명 매뉴라이프생명 T&D파이낸셜생명

자료 : FujiSankei Business(2009.10.7)

□ 변액연금보험은 그동안 노후대비용 상품으로 각광을 받아왔으나 금융환경 악화로 운용 위험이 증대되면서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음.

- 변액연금보험은 운용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노후대비용 상품으로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된 2007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해왔으나, 작년 말부터 운용환경 악화로 인한 수익률 저하 및 비용 증대로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들이 증가하기 시작함.
- 일본 최대 변액보험 판매회사인 미국 하트포드생명의 경우, 주요 변액보험 상품들이 원금 손실을 보는 등 손실 규모가 확대되자 올해 6월 무기한 판매를 중단했으며, ING생명과 스미토모생명 역시 현재 변액보험 판매를 중단한 상황임.
- 반면에, T&D파이낸셜은 주식 비중을 대폭 낮춘 변액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 중이고, 미츠이스미토모해상메트라이프도 계약시 수익률을 확정하는 정액연금보험의 판매 비중을 늘리는 등 전문가들은 저위험 성향의 변액보험 판매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(FujiSankei Business I, 10/7)